신민아·주지훈 "새로움 더한 판타지 즐겨주길"

웹툰·웹소설 원작 '재혼 황후'… 올해 기대작으로 주목
이종석·이세영 출연… 조수원 감독 "원작에 최대한 충실"



배우 신민아(왼쪽), 주지훈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재혼 황후'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세계가 주목한 'K-로맨스 판타지'가 실사로 재탄생한다. 가상의 서양 중세 황궁을 배경으로 한 익숙한 치정극이 화려한 볼거리로 구현된다.

배우 신민아, 주지훈은 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디즈니+ 시리즈 '재혼 황후' 제작발표회에서 "익숙함과 새로움이 조화된 새로운 형태의 드라마가 될 것"이라며 "여러분의 판타지를 마음껏 즐겨 달라"고 말했다.

언제나 기품을 잃지 않는 완벽한 황후로 '재혼 황후'를 이끄는 신민아는 "(실사가) 어떻게 나올지 우려와 기대도 있었다"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대본이지만 내용은 우리에게 익숙했다"고 설명했다.

이 작품은 동명 웹소설과 웹툰을 원작으로 동대제국의 황후 나비에(신민아 분)가 황제 소비에슈(주지훈)에게 이혼을 통보받고, 이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서왕국의 왕자 하인리(이종석)와 재혼하겠다고 요구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로맨스 판타지다.

원작 웹툰이 7월 기준 29억7000만 회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해 실사 제작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재혼 황후' 성공의 관건은 웹소설과 웹툰 속 세계관을 실사로 얼마나 현실감 있게 구현하는지 여부다. 시리즈 제작 소식이 알려진 후 "잘 만들면 '브리저튼', 못 만들면 실화 재연 예능인 '서프라이즈'가 된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수원 감독은 원작을 최대한 화면으로 옮겨오려고 했다고 연출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드라마 톤을 결정하는 게 제게는 가장 큰 일이었다"며 "원작 소설의 진지함이 더 밝고 잔망스러운 웹툰과는 달랐다. 그 중간을 설정해 톤을 잡아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작에 최대한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다. 원작을 봐 오신 많은 팬분이 시리즈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각국에 동시 방영되는 이 작품을 전 세계 시청자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궁금하다"며 말했다.

상상 속 세계관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독일의 성, 체코의 정원 등 해외에서 대규모 촬영을 진행했다. 또한 세트 제작과 시각특수효과(VFX) 작업 등 볼거리에도 힘썼다.

주지훈은 "미술이나 장소(섭외)에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세계관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눈으로 보는 순간 설득력이 생길 수 있는 앵글을 잡기 위해서"라며 "가상의 세계관과 우리가 봤던 것들의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재혼 황후'는 황제가 도망 노예인 라스타(이세영)와 사랑에 빠진 뒤 황후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황후가 옆나라 왕자 하인리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내용이 주된 얼개다.

소비에슈와 라스타는 스토리가 전개될수록 시청자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지훈은 "연예계 생활이 20년이 넘어 수십만 건의 댓글을 읽은 멘탈이 준비됐다"며 "작품만 재밌게 보신다면 어떤 반응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세영은 황제가 순식간 사랑에 빠질만한 개연성과 시청자들이 미워도 미워만 할 수 없는 매력을 만들기 위해 외모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했다. 연합뉴스

BTS 공연 80여 개국 극장서 상영

동남아시아 투어 19일 시작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대만 가오슝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여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전 세계 80여 개국 극장에서 상영한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3일 밝혔다.

전날 팬 플랫폼 위버스 공지에 따르면 극장 상영 대상은 이달 21일 가오슝 2일 차 공연과 다음 달 29일 자카르타 3일 차 공연이다.

가오슝 공연은 약 3300개, 자카르타 공연은 약 2800개 대형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다. 국내에서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멀티플렉스 3사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빅히트뮤직은 "상영은 각 지역의 시차에 맞춰 실시간 생중계 또는 공연 후 1~2일 내 딜레이 중계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디움 현장의 열기와 에너지를 생생하게 전달해 공연장 밖에서도 콘서트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서 고양, 부산, 도쿄,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파울루에서도 진행돼 음악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9일 대만 가오슝을 시작으로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 5개 도시에서 15회에 걸쳐 월드투어 '아리랑' 동남아시아 투어를 연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8일과 30~31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남미 투어를 마쳤다. 멤버들은 남미 5개 도시에서 14회 공연을 전석 매진시켜 총 85만3000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빅히트뮤직 제공

'그대 그리고 나' 부른 그룹 소리새 김광석 별세

1981 데뷔 솔개·솔개트리오
아직도 못다 한 사랑 등 히트

'아직도 못다 한 사랑'과 '그대 그리고 나' 등으로 1980년대 인기를 끈 포크 그룹 소리새의 김광석이 3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0세.

박성서 대중음악평론가는 "김광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이 악화했고, 2023년 이후 뇌병변 장애 투병 생활을 하다 오늘 오전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1956년 인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동료 가수 황영익과 인천에서 '짠물집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1980년 한정선과 함께 트리오 솔개를 결성해 1981년 데뷔했다.

김광석, 한정선, 황영익으로 구성된 솔개는 록 계열의 '연극 중에서'와 트로트 계열의 '아직도 못다 한 사랑'을 비롯해 레게, 알앤비(R&B), 컨트리 포크, 프로그레시브 등 다양한 음악을 시도했다. 이 가운데 멤버 한정선이 작사·작곡한 '아직도 못다 한 사랑'이 큰 사랑을 받았다.

솔개는 1985년 솔개트리오로 이름을 바꿔 활동했고, 1987년 한정선의 탈퇴로 이듬해 새 멤버 한영을 영입해 소리새로 이름을 바꾸고 명맥을 이어갔다. 소리새 시기 발표한 '그대 그리고 나'가 크게 히트해 고인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로 남았다.

소리새는 1994년 한영이 탈퇴하면서 김광석과 황영익의 듀오로 활동을 이어갔고, 2000년 이후 새 멤버 윤기환을 영입해 소년소녀가장 돕기·장기기증운동·아프리카 우물 파기 등 많은 자선 콘서트를 펼쳤다.

고인은 2015년 소리새의 새 멤버 윤기환과 듀엣으로 광복 70주년 기념 음반 '평화의 강'(북녘땅에 보내는 노래)도 발표했다. 빈소는 교원예움 인천사랑병원 장례식장 특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4일 오후 1시다. ☎ 032-441-0404. 연합뉴스


솔개트리오·소리새의 김광석. 박성서 대중음악평론가 제공

JTBC, 매각공고안 허가받아 본격 절차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JTBC가 법원에서 매각공고안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3일 JTBC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JTBC가 신청한 매각공고안과 인수의향서(LOI) 제출안내서 허가 신청을 당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JTBC는 9일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매각 절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각 공고가 게시되면 잠재적 인수 후보들을 대상으로 약 4주간 인수의향서를 접수한다. 이후 예비실사 등 매각을 위한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JTBC스튜디오일산. 연합뉴스

JTBC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인수자를 확정하고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이며, 매각 주관사는 한영회계법인이 맡았다. 연합뉴스

K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동행(재)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지명수배
13:55 KBS 뉴스특보
14:20 열린채널
15:00 어린이동물티비(재)
15:30 영상앨범 산(재)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지역 소멸 극복 프로젝트 우리 동네
20:30 일일드라마 엄마가 미쳤어요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K-슈퍼푸드 기획 생로병사의 비밀
22:50 KBS 뉴스라인W
23: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KBS2

6:05 TV 유치원
6:3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7:30 생생정보 스페셜
8:40 일일드라마 엄마가 미쳤어요(재)
9:20 일일드라마 욕망의 덫(재)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KBS 아침 뉴스타임
11:1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12:3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5:15 월드 24
15:45 강치 아일랜드(재)
16:00 TV 유치원(재)
16:30 영상앨범 산(재)
17:00 마카앤로니 4
17:15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
17:30 꿀잼 영화가 좋다
18:00 경제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욕망의 덫
20:30 슈퍼맨이 돌아왔다
21:50 2026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23:20 토일 미니시리즈 너 말고 다른 연애(재)

MBC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가족관계증명서(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MBC 뉴스특보
11:30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12:00 12 MBC 뉴스
12:25 엄마를 부탁해(재)
13:25 최고다! 호기심 딱지(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PD수첩(재)
18:05 MBC 스포츠 KBO 한국시리즈2차전 상섭 : KT
21:50 MBC 뉴스데스크
22:30 라디오스타

JIBS/SBS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방플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SBS 뉴스특보
11: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00 SBS 12 뉴스
12:45 호텔페니
13:00 보석이네 건강 수다(재)
14:00 특집 뉴스브리핑
15:30 지구는 생명이다
16:00 네모세모
17:00 JIBS 저녁 뉴스
17:10 테마스페셜(재)
18:1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현터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골 때리는 그녀들
22:50 더 리슨6

EBS1

8:20 어린 철학자
9:20 처음 배우는 AI
10:35 최고의 요리비결
12:10 왔다! 내 손주
1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마인즈
14:10 EBS 평생학교 스페셜
17:20 남남 히어로 슈퍼잭
18:30 덩이랑 쾡이랑 인물 한국사
22:50 EBS 스페이스 공감

KCTV

9:00 KCTV 9시 뉴스
9:30 문화카페
10:00 제주의 가치 재발견 시즌 7
12:30 용천수 마을다이어리 시즌2
13:20 방송콘텐츠 경연대회
14:00 챌린지 퀴즈챔프
15:20 기획 - 제주바다 공존의길
16:00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
17:20 문화카페
18:0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9:30 도시재생 특별기획

제주CBS FM 93.3Mhz 90.9Mhz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송인찬의 어떤가요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CBS 뉴스룸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 105.5Mhz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5 달리는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4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아름다운 추억의 과거를 생각한다. 외롭다. 48년 다혈질 감정을 억제하고 아랫사람과 대화와 화합에 신경써라. 60년 손재수가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하는 일에 집중하라. 72년 운동이나 음식을 함께 할 동료나 친구가 찾아온다. 84년 직장이나 이성관계에서 선택의 고민을 하게 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37년 구설이 상대나 나를 통해 이뤄지니 언행 조심할 것. 49년 청탁 또는 뇌물을 받으면 즉시 구설수에 오르거나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 61년 벌과금 또는 생각지 않은 재물지출이 생기니 운전 시 안전 유의. 73년 몸과 마음이 분주해 갈 데가 많다. 스케줄 관리철저. 85년 취업이나 시험에 기쁜 소식이 있다.


38년 재물에 이익이 따르나 건강 관리 철저. 50년 자식문제나 직원의 문제로 부부 간에 언쟁이 생기니 주의. 62년 자녀문제로 기쁜 소식을 접한다. 74년 문서 계약에서는 유리. 투기는 조심해야 하며 도박·경마는 멀리하라. 86년 이성교제가 양쪽에서 올 수 있다. 결단이 필요. 외모가 깔끔한 사람을 먼저 선택.


39년 활동성이 왕성하고 의욕이 강하나 배신수 조심. 51년 감정이 앞서면 낙상할 수 있으니 여유가 필요하고 늦지말 것. 63년 무언가 새롭게 바꿔 보려고 마음이 동요한다. 75년 귀인을 만나는 격으로 길하나, 자만이나 과욕은 후회를 부르게 된다. 87년 상대에게 믿음과 신용을 얻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


40년 하는 일에 성과가 있으며 인정받는다. 52년 강함은 부드러움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배려와 격려가 필요한 때. 64년 차면 넘친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면하기 어렵다. 76년 남의 일에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참견은 구설로 나를 오히려 실망시키게 된다. 88년 이성교제시 불화가 생기니 언쟁 조심하라.


41년 즐거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 53년 매출 이익이 따르거나 동업, 창업하려 한다. 손으로 하는 업이 유리. 65년 나의 능력이 꼭 필요한 때. 주변의 도움에 적극 임하라. 77년 신규창업이나 할 일이 생기고 업무가 늘어나 즐거우나 결과는 저조. 89년 한번 시작한 일은 마무리를 잘하는 습관이 필요.


42년 소송 또는 문서와 관계된 일은 불리하니 미루거나 합의로 진행함도 좋다. 54년 할 일은 늘어나고 피곤한데 돕는 이가 없어 외롭고 능률은 저하. 66년 능력은 있어도 주변에서 나를 몰라준다. 78년 만남의 기쁨은 잠깐, 커다란 기대는 오히려 실망을 키운다. 90년 재물에 이익이 따르나 건강은 염려된다.


43년 주변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다. 상대를 배려하며 경청해줄 것. 55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 답답함이 가중된다. 67년 목표를 선정, 실천하면 좋은 결과 온다. 79년 자녀에 대한 경사나 막혔던 일이 해소된다. 91년 친구 또는 동료와의 관계가 좋으나 용돈은 궁하게 된다.


44년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는 법. 변동은 자제하고 신중해야. 56년 탁월한 언변 친화력으로 인정받는다. 68년 자녀문제나 가족문제로 불화가 생긴다. 80년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저축 또는 미래 설계 필요하다고 느낀다. 92년 친구의 문제나 가정에서 불화가 조성되니 집착하지 말고 마음은 열어라.


45년 경쟁자가 나를 시기하거나 배신하니 주의하라. 57년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일이 있다면 풀려나가니 계획을 잘 세워라. 69년 가정에서보다 외부로 경제적 가치를 찾으려 한다. 81년 시험 자격 준비자에게는 진전이 있고 희망이 보인다. 93년 어려움 가운데 희망이 보인다. 형제일로 고민이 생긴다.


46년 급할수록 돌아가는 마음과 여유가 필요하다. 58년 활동력은 왕성해지나 지나치거나 무리하면 결과는 오히려 작아진다. 70년 상사의 추천·도움이 있거나 사업자는 금전운이 좋아진다. 82년 모임이 있으나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기 귀가. 94년 의욕이 강하고 갈 곳이 많다. 활동 원만.


47년 손재가 있거나 분실수가 보이니 오래 머물러야 할 경우 중요한 것은 두고 외출. 59년 하는 업무에 하자가 발생하니 중요 계약은 다음으로 연기. 71년 자식 관련 문제로 바쁘고 고민을 하게 된다. 83년 취업이나 직장문제가 지연되고, 하는 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격. 95년 언행에 장해가 따르거나 낙상 조심.